

CREATION

TRUTH



모조품에서 벗어나기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이사야 58:12).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 최상품의 명품 물건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므로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음에 틀림 없다. 환경도 그 위대한 사람이 살기에 어울리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은 아담의 범죄, 노아홍수의 격변, 바벨탑 사건에 의한 인류의 찢어짐 등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기에는 아주 아주 부적합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후 세월이 지나면서 최

상품의 진품들이 모두 다 고장이 났거나 모조품들로 대체되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모조품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개인이 믿고 있는 복음도 모조품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진정으로 강하게 믿어도 모조품 복음을 통해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정확무오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무슨 내용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왜곡하여 읽도록 하는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결과적으로 마음 속 깊은 곳에 왜곡 된 진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가르침들이 만연해 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성경의 진리를 모조품 진리로



“수백만년의 지구역사와 진화론” 수용으로 (무너지고 있는 기초)와 (세워지고 있는 기초)

바꿔치기 해 버린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 전혀 허무맹랑한 것으로 속이지 않고, 약간의 사실들을 동원하여 “정말로?”라고 질문하여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사탄은 지금도 동일하게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정말로?”라고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있다.

사탄의 그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거두고 있다.

사실이 아닌 수억 년의 지구역사와 진화론이 1900년대 초에 영국과 유럽을 휩쓸어 버렸다. 여기에 대응하여 교회는 모조품 창조론으로 대응을 했다.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신거야!’라고. 그러나 이 모조품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영국과 유럽 교회들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진리를 버리고 모조품 진리(유신론적 진화론)를 받아 들였을 때 불과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거의 문을 닫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미국 교회의 차례가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기 시작한 지 아직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 심각한 교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미 문을 닫은 교회도 수 없이 많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와 기독교 방송과 매체들을 가진 미국에서 왜 매일 신자의 수는 줄어 들고 있는 것일까? 단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진화론과 성경이 혼합되어 결국 모조품이 된 진리를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모조품은 모조품일 뿐이다. 이 모조품 진리로 교회가 지속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진화론을 더 많이 수용한 자유주의 교회부터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영국이나 유럽처럼 교회가 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유럽에서 진화론이 득세하는 동안 교회에서는 그 거짓을 이길 방법이 믿음뿐이었다. 그래서 영국의 존경 받는 설교가 스피전 목사님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진화론을 수용하고 말았다. 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 C. S. 루이스는 진화론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성경과 다른 수억년의 모조품 지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결국 그들의 몰락과 함께 영국 교회는 몰락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 모조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그 모조품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모조품들을 버리고 진품으로 교환을 해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모조품 지식들을 하나씩 성경의 진리로 바꾸어 그 위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복음의 기초는 실존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과 성경적 (진짜) 창조다. 세상에서 속아서 사 온 물건들을 다 돌려 주고 진품으로 바꿔야 한다. 진화의 결과물들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세상의 가짜 역사는 다 버리고 성경의 진짜 역사로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성경의 역사 속에만 진정한 복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빅뱅 대신 6일간의 창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신에 땅을 침몰한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문화 발전이 아니라 노아 홍수 전 철기 시대에서 바벨탑을 겪으며 잃어버린 문명과 갑자기 다시 시작한 문명으로 바꾸어야 한다. 창세기 1장을 시에서 실제 창조 기록으로, 창세기 11장까지를 설화에서 전 인류의 공통 역사로 바꾸어야 소망이 있다. 진화론자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창조물 공동도 되찾아 와야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별들도 진화론자들에게서 되찾아 와야 한다. 그것들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역대상12:32).

교회의 리더들은 현 상태를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최근에 비정상적인 결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도록 명령한 캘리포니아의 교육법 SB48이 만들어졌고 2009년에는 게이의 날이 제정되었다. 미국의 큰 교단에서는 동성애자 목사를 허용하였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미국의 기초가 성경에서 진화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크리스천의 기초도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을 허용한 상태에서 동성행위와 같은 진화론의 열매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바른 기초를 제공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때다.

최우성 박사/ 창조과학선교회

진화나무에서 창조과수원으로



진화나무

“모든 생물이 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며 나무줄기와 함께 줄기 끝에 그려진 생물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진화나무라고 부른다. 이 그림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생물들이 과거로 과거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한 조상을 만난다는 말이다. 사람도, 소도, 토끼도, 모기도, 감자도, 개나리꽃도...

진화론자들은 오늘날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처음에 “한(one) 생물”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되는 과정이 관찰되거나 실험에 성공한 예가 없으니, 하나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여러 생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믿기 어렵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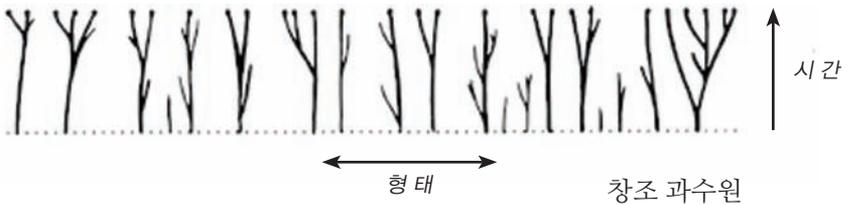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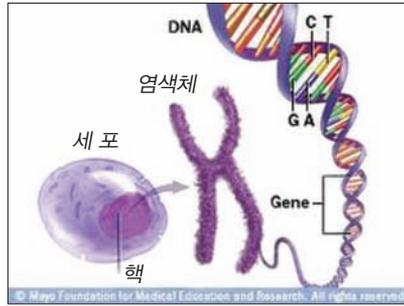
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화나무 가지가 뺏어나가는 것처럼 가지 끝에 그려진 생물로 진화되는 중간단계 과정의 생물이 관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는 과거에 살았던 화석이나 현재 살고 있는 생물 모두에서 마찬가지다. 진화론자들이 중간단계 생물이라고 발표했던 몇 개의 화석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 냈다는 내용은 이미 뉴스레터나 창조과학 도서를 통해서 여러 번 다루어졌다.

그렇다면 과연 지구상에 진화나무에 있는 순서대로 생물들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걸까? 딱 학군데인데, 진화론 책 밖에는 없다! 진화나무를 자세히 들여다 보라. 생물 그림들이 모두 어디 있는가? 모두 가지 끝에 있다. 변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할 줄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 줄기는 진화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진화론자 자신들의 ‘믿음’으로 매운 것이다! 물론 이 믿음은 진화론이 등장한지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화되는 과정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줄기는 그릇된 믿음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진화나무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진화를 믿고

있다는 자신들의 “고백”인 것이다.

염색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염색체는 유전정보가 들어있는 DNA로 구성되어있다. 각 생물은 세포 속에 자신의 독특한 염색체 숫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염색체 개수를 통해서 생물의 종을 분류하기도 한다. 생물들은 항상 짝수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사람은 46개다. 그런데 염색체 개수도 진화의 순서와 무관하다. 복잡하거나 지능이 높은 생물이라고 염색체가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개(78), 토끼(44), 소(60), 말(64), 원숭이(48), 토마토(48), 가재(200), 모기(6) 등이다. 염색체 개수가 다르면 서로 교배가 아주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개수가 같다고 모두 교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DNA가 다르면 교배가 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각 생물의 염색체 개수도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화석이나 생물들을 모아보면 어떤 모델과 잘 맞아 떨어질까? 진화나무가 아니라 바로 “창조 과수원”이다. 창조 과수원이란 그림과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생물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창조되었던 종류 안에서 다양해질 뿐이지 다른 종류로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다. 이 “종류”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창세기 1장을 제외하고 가장 분명하게 언급된 장면은 홍수심판 당시에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는 장면에서다.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는 과정에서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창 7:3)라고 했다. 그러므로 교배할 수 있는 단위를 분명히 언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질서와 한 종류 안에서 무한이 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은가?





일본 순회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9월 17-25일 일본을 순회하며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큰 도시에서 모집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올해부터는 각 도시의 교회를 도는 순회세미나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 교회에서 창조과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는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찌오, 요코하마, 나가노, 니가타, 도쿄 등을 순회했는데, 매 도시마다 거의 여섯 시간씩 인도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강연 중인 이재만 부회장





각 도시의 교회였는데, 타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교인들도 함께 참석하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은 1877년 일찍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보다 약 100년이 앞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고에 물들어 있습니다. 또한 신학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유주의 신학이 빨리 들어가 성경을 사실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대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과학은 일본인과 일본교회를 성경으로 일깨우는데 귀한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회세미나에서 내년 봄에 도쿄의 요도바시 교회에서 대규모 창조과학 세미나를 열기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회세미나는 일본 창조과학 단체인 Love Creation(회장 사사끼)에서 주최하였으며, 통역은 아마구찌 목사님과 김영숙 선교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창조과학을 통해서 일본의 각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도해주세요.

이재만 선교사 한국방문

이재만 선교사는 일본 방문에 이어 3주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전주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이랑학교, CEO 스쿨을 포함해서, 생터성경사



역원(대표 이애실) 익산동산교회(전계현), 행복한교회(박진성), 서울 목동지구촌교회(조봉희), 두란노 영성수련회, 이랜드, 종교교회(최이우), 온누리 중국선교회, 온누리 선교학교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시카고 베들레헴 교회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9월 9-11일 시카고 베들레헴교회(담임목사 이상규)에서 3일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5월 탐사여행 (자료사진)



주님의영광교회 창조주 하나님

2011년 한 해 동안 4 주일간 3회 진행 된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창조과학 세미나 시리즈가 10월 9일 최우성 박사의 생명체의 기원과 인간복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4 주간은 최태현 박사, 두 번째 4 주간은 이재만 선교사, 그리고 마지막 4 주간은 최우성 박사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세미나로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hurch for All Nations (CFAN) Pastoral Workshop

9월 26일 김선욱 박사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소재한 Church for All Nations (CFAN)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창조과학세미나와 사역을 소개 하였습니다. 담임목사, 영어권 목사, 청소년 담당 목사, 어린이 담당 목회자 그리고 6개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담임목사님은 KM과 EM이 동시에 창조과학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선옥 박사는 본 교회 청소년부와 다른 교회가 연합으로 참여하는 EM 겨울 리트릿인BRIDGE 2011(12월 26-29일)에 감사로 초대되어 6 번의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영어권 2세들을 위한 사역이 더욱 활발해 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NCD 목회자 창조과학탐사여행

9월 19-21일 한국 NCD(자연적 교회성장)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의 주관으로 남그랜드캐년 창조과학탐사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여러가지 형태로 교회나 총회의 프로그램으로 도입 하려는 교회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행에는 한국의 풀포츠로 알려 진 김태희 집사가 참석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창조과학학교 종강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 진행 된 제 19기 창조과학학교가 지난 9월 11일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면서 끝이 났습니다.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한 학교였지만 열

정을 가진 분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사역팀에 감사 드리고 i-Blu를 운영하시는 Jolie Yi 집사님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2012년 동계 ITCM 모집

제 6기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9 주간입니다.

ITCM 과정은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집중 훈련 프로그램으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해 배우는 기초 프로그램(ITCM-1)과, 기초 프로그램 이수 후 사역자로 훈련 받는 사역자 프로그램(ITCM-2)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와 훈련 과정과 열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은 웹 페이지에 있는 상세한 안내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 5기 ITCM 과정 (자료 사진)



탄닌

tan-noon

창세기 1 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언급한 생물이 있다. 큰 물고기 혹은 큰 바다 짐승, 큰 고래, 큰 생물, 혹은 바다 괴물 등으로 불리는 바다 생물이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동물을 탄닌(tan-noon)이란 복수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탄닌이란 단어는 다른 성경에도 27차례 더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본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번역본에서도, 용(dragon), 뱀(serpent), 바다 괴물(sea monster), 큰 악어, 들개, 자칼(jackal), 승냥이 등으로 다르게 번역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왜 그리고 언제 자취를 감추어 버렸을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TV의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공룡처럼 중생대에 멸종한 동물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기독교인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만약 탄닌이 중생대에 사라진 동물이라면 무엇이 문제일까? 한 동물에 대한 지식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중생대에 사라져버린 동물들은 아담(인류)이 존재하기 6500만년 전에 죽었으므로 아담의 죄와 상관 없이 죽은 것이 된다. 이 수억 년의 지질 시대가 사실이면 결국 죽음과 아담의 죄는 상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롬 5:12). 그러므로 탄닌이 중생대에 사라졌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는 믿음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거나 외면한 믿음인 것이다.

지금은 공립학교는 물론 많은 크리스천 학교에서마저도 수억 년의 지구 역사를 사실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진리인 성경과 다르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각 지질층들은 과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해 보고 각각 6억년, 2억년, 6500만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이 속에 들어 있는 표준화석들(index fossils)을 보고 그렇게 오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 표준화석의 연대를 측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석의 나이는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한 진화론 작가가 잘 표현하고 있다. “화석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뼈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Shreeve, Argument over a woman, Discover 11(8):58, 1990)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질 시대는 믿음으로 그려 낸 상상의 지질시대일 뿐 전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크리스천이 (특히 크리스천 신학자가) 바른 믿음을 갖는 데 극히 중요하다. 성경에 수억 년의 장구한 세월을 집어 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완벽했던 창조와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 노아홍수 심판으로 인한 창조 환경 파괴, 그리고 홍수 직후의 바벨탑 사건 등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말아 결국 반쪽 복음을 갖게 된다. 사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 불리는 지질층들은 수억 년의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노아홍수 심판 때 지구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생긴 것이다. 지층 속에 화석으로 남아 있는 동물들은 아담(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탄닌은 실존하지 않았던 중생대에 멸종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탄닌은 언제 멸종 되었을까? 성경은 두 번의 격변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노아홍수와 바벨탑 사건이다. 그러나 노아홍수 때 하나님은 창조 된 모든 종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창 8:17). 그러므로 탄닌도 노아홍수 당시에 많이 죽었겠지만 멸종되지는 않았다. 세속 과학자들은 신생대 제 4기 즉 빙하시대 직후에 많은 대형 동물들이 멸종 되었다고 말한다. 창조과학자들도 연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 번의 빙하시대가 노아홍수 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빙하시대 이후 급격하게 악화 된 환경변화로 멸치 않은 과거 인젠가 공룡 등과 더불어 탄닌도 멸종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설명은 홍수 직후 약 450년 정도였던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250년으로 줄어들고 이후 서서히 더 줄어드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탄닌은 왜 멸종 되었을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창조 이후 점점, 때로는 급격하게, 환경이 악화 되어가고 있는 원인은 죄였다.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했으므로 이 죄와 죄의 결과인 타락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창조주 뿐이다. 그러므로 신임하고 있는 피조물들(롬 8:22)의 유일한 구원자로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성경이 천문학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는가?(1)



성경은 종종 과학적으로 시대에 뒤 떨어진 책으로 취급을 받는다. 많은 TV 다큐멘터리들은 성경을 조소하는 “성경 학자”들을 내세워 성경은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신화와 이야기에 불과하며 성경에 나오는 역사나 과학적 사실들을 믿을 수 없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와 과학에 대하여 거듭 무오함을 입증해 왔다. 여기서는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닐 지라도 성경에 언급된 천문학적 내용이 보다 정확함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천문학적 관측 결과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수천년에 보다 잘 일치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낮을 주관할 빛으로 태양을 그리고 밤을 주관할 달과 별들을 주셨다는 성경 말씀(예레미야 31:35)을 믿는다.

한 마디로 성경은 우주의 역사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 말해 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말씀은 역사책 그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는 지 잘 아신다. 따라서 그 말씀은 우주를 이해하는 초석을 제공해 준다. 반면에 세상의 과학 교과서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잘못이 드러나 해마다 바뀌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바뀌지 않는 불변의 말씀이다. 이는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이 특별한 주제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다. 성경이 지질학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지질학은 정확하다. 성경이 생물학이나 인류학에 대하여 언급할 때 또한 그렇다.

그러면 천문학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

는 우주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려고 한다. 미리 말하지만 성경이 언급하는 천문학적 내용들이 매우 정확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근 지구

성경은 지구가 동근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구약성경의 이사야 40:22는 지구를 원형(circle of the earth)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주에서 볼 때 지구는 원형이다. 이는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욥기(26:10)에는 하나님이 낮과 밤의 경계를 수면으로 정하사라고 묘사되어 있다. 낮과 밤의 경계는 저녁과 아침이 발생하는 곳이다. 그 경계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원형인 것이다.

공간에 떠 있는 지구

구약성경의 욥기 26편 7절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다. 아무 것도 없는 무(nothing)위에 지구를 매달았다는 묘사이다. 이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들을 달아 매듯 지구를 텅빈 공간에 달아 매었다는 뜻이다. 비록 시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지구가 공간에 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우리는 오늘날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통하여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음을 잘 안다. 그야말로 성경말씀 그대로 지구는 아무 것도 없는 공간에 달려 있는 것이다.

Dr. Jason Lisle/ Answers in Genesis의 강사

현대 의학은,
진화론적인
<흔적기관>의
생각을
거부할 때
진보한다.

AFTER EDEN

by Dan Lietha



목동 지구촌 교회 탐사여행

6/6 - 6/8/2011

경애하는 이 선교사님. 너무나 위대한 사역을 하십니다. 창조과학투어, 한 사람의 여행지만 받는 감동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evangelist)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의로운 전파자, 노아와 같은 사역이요, 바울같은 위대한 선교사역입니다.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 조봉희 목사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일이 있었다니 선교사님의 사역에 감사, 감사 드립니다. 그간의 삶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이제라도 선교사님의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 이동현 집사/ 서울지구촌 교회

진화론의 허구성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결국은 성경말씀대로 증명됨을 알았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 김왕택

청년들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이번 여행이 제게 더 큰 열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혁을 이룰수 있도록 창조과학투어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 이상규 목사

신의 뜻을 담은 두 가지의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 신성한 두가지의 책은 성서와 자연의 책이란다 이 여정을 통하여 자연의 비밀을 해독하여 주심으로 성경을 더욱 알게하시고 믿음 더욱 성화된 기분이다. - 윤성근

저는 본래 진화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는 확신이 없었는데 선교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는 구원의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박남길

학교에서 배웠던 몇백만년전 몇억만년전 이야기들중 사람의 수명은 유한한데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는데 진화론자들의 허구였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 이광자 권사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인류조상사에 심판이후 노아의 가족 (8명) 이 인류 조상임을 배우게 되었다. 말씀안에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위성윤 집사

이 좋은 투어를 남편과 자녀들, 많은 사람에게 강권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곳으로 발을 넓히셔서 다른곳에서도 은혜받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열강에 은혜받고 성경을 다시한번 귀히 생각하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진화의 반대는 성경임을 명심합니다. - 김민숙 권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당시에 얼마나 아름답고 광대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홍수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나무와 유기물로 온 지구가 뒤덮였을 것이고 엄청난 격변의 결과, 지금 인류가 사용하는 석탄과 석유등이 만들어 졌을 것이다. 처음에 창조과학 여행을 하면서 인간의 죄로 인해 내려진 엄청난 홍수의 벌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그런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운 생각도 해봤지만 또한 석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예덕수

창조과학 탐사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였고 노아홍수의 산 역사를 깨닫게 되어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 방금석 장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실을 다시한번 확신 할수있음을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투어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소망합니다. - 김길용 장로

정말 감사합니다. 막연히 그저 감탄만 하고 지나갈 여행길을 노아홍수를 통하여 설명을 듣고 지질학적 분석과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나서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았을때의 감격은 이루말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창조과학탐사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자세히 알게됨으로써 그동안 막연히 믿었던 부분에 대하여 명쾌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 이대현 장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선교사님을 통해 직접보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랜드캐년은 노아홍수전과 홍수후의 시대의 직접적인 현장이라서 성경을 다시 읽을때는 감동을 받을것 같습니다. 이제만 선교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조과학 선교회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 강종경 권사

막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게된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랜드, 브라이스, 자이언 케년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됨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 조경희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노아방주, 홍수 때와 그 후를 듣고서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믿어라라는 증인, 곧 주님의 말씀, '성경' 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 오정숙 권사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느끼고 감사할수 있는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더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또 오고 싶은 감동의 시간, 생명을 살리고 증인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좋은 시간 이었습니다. - 노성자 권사

● 편집되지 않은 더 많은 간증은 웹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ACT Schedule

- 11/1-3 사랑한인교회 (이재만), LA
- 11/4-6 산호세 새소망 교회 (이재만), San Jose, CA
- 11/7-11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두란노 모임)
- 11/13 LA 온누리교회 (최우성), LA, CA
- 11/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加州 교역자 협의회)
- 11/14-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름다운교회/중국목회자)
- 11/21-23 창조과학 탐사여행 (베다니장로교회)
- 11/27 로템 교회 (이재만), Anaheim, CA

- 12/2-4 하와이 벨엘 침례교회 (이재만), Hawaii
- 12/9-11 오레곤 에덴장로교회 (이재만), OR
- 12/12-23 World Mission University (이재만, 최우성)
- 12/18 LA 온누리교회 (이재만), LA, CA
- 12/26-29 BRIDGE 2011 (EM, 김선옥), MD

2012년

- 1/2-4 창조과학 탐사여행 (13차 유학생, 213-381-1390)
- 1/10-12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청소년들)(213-381-1390) (이재만)

- 2/12-15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교회 남미선교사)
- 2/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 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유타주 베다니침례교회), (이재만)

- 4/9-4/26 한국방문(이재만)
- 4/26-5/7 일본방문(이재만)

- 5/10-17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 5/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 6/4-7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 6/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4차 Fuller 신학생, 213-381-1390)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